인문연구 제8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7, No. 7, pp.165~200
http://dx.doi.org/10.21211/JHUM.87.7

고려의 對중국 遊學과 制科 급제자

김덕수*

〈차 례〉

1. 서론
2. 유학 관련 외교문서의 수수
3. 고려의 對중국 유학과 제과 응시
 1) 宋나라 국자감 입학 및 제과 급제자
 2) 元나라 제과 응시 및 급제자
 3) 明나라 제과 응시 및 급제자
4. 결론

【국문초록】

고려는 중국 遊學과 制科 응시를 통해 선진 문물을 흡수하고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예컨대 金行成은 송나라 국자감에 입학한 최초의 외국인이자 제과 급제자였고 金濤 역시 외국인으로서 최초의 명나라 제과 급제자였다. 송나라 연간에는 국자감에서 수학한 뒤 제과에 응시했으나 원나라와 명나라 때는 제과 응시만 이루어졌다. 송나라 국자감 입학을 위해 출국한 고려 자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책임연구원

가 제과에 급제하기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6년이 소요되었다. 짧지 않은 유학 기간을 감안한다면 귀국했을 무렵 宋風의 유려한 詩文을 구사하고 국제적 안목까지 갖추었으며 중국어 실력도 상당했을 것이다. 원나라 시기에는 자국에서 문한직을 충분히 역임한 능문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엄선하여 제과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고려 禮部試에서 壯元을 차지했던 수재였고 나머지도 丙科 2위 이상의 등차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崔瀣부터는 제과에 합격하고 나서 원나라에서 일정 기간 관직을 역임했으며 중국 문사와의 교유를 통해 학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14세기 초·중반기는 원나라 제과 출신이 고려 조정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며 학술과 문예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시기였다. 이들은 외교문서 제작을 전담했고 서적 편찬과 간행 사업을 주도했으며 교육과 과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배양했고 외교 부분에서도 使臣과 館伴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고려에서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한 차례다. 1371년 朴實, 金濤, 柳伯濡가 응시하여 김도가 합격했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나라 과거에 급제한 것도 김도가 유일하다. 고려 조정에서는 제과 응시뿐만 아니라 명나라 국자감에 고려 자제를 입학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명나라 환관과 사신이 살해되는 사건, 공민왕 시해 사건 등이 연거푸 발생하여 국자감 입학의 염원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로는 제과 응시조차 실현된 적이 없다. 유학 및 제과 응시의 단절은 조선시대의 학문적 경직성과 사상적 폐쇄성을 초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國子監, 制科, 禮部試, 及第, 遊學

1. 서론

당나라 태종 연간은 貞觀之治라 칭해질 만큼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시기였다. 당시 長安의 國子監 學舍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그 규모가 무려 1,200칸에 이르렀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창, 토번 등 주변국에서도 그곳에 자제를 입학시켰는데 정관 연간에 국자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8,000명을 상회했다고 한다.[1] 三國의 자제가 이국땅에서 각국 유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문에 매진하던 전통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유학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학술적 성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려 말에 牧隱 李穡과 같은 대문호가 출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 국자감 유학의 오랜 전통은 조선 선비의 문화적 자긍심과 소중화 의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드리웠다.[2]

조선시대 詩話書를 살펴보면 조선의 문학 수준이 고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곤 한다.[3] 조선 문인이 고려 왕조를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복고주의나 상고주의 정도로 치부하기 어렵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조선에서 明이나 淸에 유학생을 보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없다. 조선과 중국 간 문화 교류의 채널은 명나라 사신이 입국했을 때 이뤄진 明詔

---

1) 王溥 撰, 『唐會要』 권35, 〈學校〉. "太宗數幸國學·太學, 遂增築學舍, 一千二百間. 國學·太學·四門亦增生員, 其書·算等各置博士, 凡三千二百六十員. …… 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諸國酋長, 亦遣子弟請入國學. 于是, 國學之內, 八千餘人, 國學之盛, 近古未有."

2) 趙緯韓, 『玄谷集』 권12, 〈上韓提督主事【萬象】書〉. "本國雖在外藩, 而本不與夷狄共貫. 蓋自漢·唐, 至于宋·元, 待之無間於內外. 或有遣子弟入學者, 或有占巍科通籍者, 歷數於仕路者, 猶班班可譜, 豈不以王者之用人無方, 而箕大師八條之敎, 有以稱小中華之號哉!"

3) 申欽, 『象村稿』 권52, 『晴窓軟談』 下. "我國文章, 非不蔚然輩出, 而比之麗朝則少遜焉. 李文順之宏肆, 李文靖之浩汗, 我朝未之見焉."; 金萬重, 『西浦漫筆』 下. "本朝詩力量不如前朝."

使와 조선 문사의 만남, 조선 사행단이 중국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견문한 것이 대부분이다.[4] 그렇다면 고려의 문학이 조선보다 낫다는 견해를 중국 국자감 입학 및 제과 응시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거니와 조선이 유학을 시행하지 않아 고려만 못하다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對중국 유학의 시행 및 급제자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유학 시행을 전후하여 양국이 수수했던 문서를 검토하되, 가능한 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어서 송나라 국자감 입학 및 제과 응시 현황을 고구한 뒤, 원나라와 명나라 제과 응시자 및 합격자에 관해 개괄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중국 유학과 제과 응시의 과정 및 실상,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일정 부분 도출되기를 바라거니와 『고려사』 기사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불완전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유학 관련 외교문서의 수수

중국 유학이나 제과 응시를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요청하는 表文을 보낸 뒤[5] 그것을 수락하는 詔書를 받아야 했다. 혹은 사행단 편에 유학생을 함께 보내며 국자감 입학을 요청하기도 했다. 1099년(숙종 4) 송나라에서 조서를 내려 고려 擧子의 제과 응시를 허락한 적이 있다.[6] 『고려사』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이것은 고려 조정의 요구에 대한 송나라 측의 공식적 답변으로서 일정 기간

4) 皇華 酬唱과 조선의 詞章 진흥정책과의 관련성 및 양국 간 시문 수창의 제반 특징에 대해서는 김덕수(2001) 참조.

5) 表文은 내용에 따라 賀表, 謝表, 請表, 乞表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자감 입학이나 제과 응시를 요청하는 표문은 請表에 해당한다.

6) 『고려사』 권74, 志, 권28, 「選擧, 制科」.

폐지되었던 제과 응시의 재개를 수락한 것이다.[7] 여하튼 『고려사』에 의하면, 조서를 접수하고 나서 무려 16년이 지난 1115년(예종 10), 사행단 편에 고려 학생을 딸려 보내며 표문을 통해 국자감 입학을 요청했다.[8] 동년 7월 21일, 이부상서 王字之와 호부시랑 文公美가 謝恩使 겸 進奉使로서 송나라에 갈 때, 고려 진사 金端, 甄惟底, 趙奭, 康就正, 權適 등 5명이 동행한 것이다.[9] 물론 사행단은 미리 지어 놓은 국자감 입학 요청 표문을 가지고 갔다.

>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중화의 교화를 사모하여 開寶(968~976) 연간부터 神宗(1067~1085) 시대까지 사신을 보낼 때마다 生徒를 함께 보내 그들로 하여금 周나라의 풍속을 살펴 魯나라로 변화시킬 것을 기약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중도에 폐지되어 오랫동안 학생을 보내지 못한 탓에 배우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자세히 일러 준 말들을 절반이나 잊어버렸습니다. ……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 품고 있던 마음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학생 김단, 견유저, 조석, 강취정, 권적 5명으로 하여금 사은사 겸 진봉사를 따라 뱃길을 이용하여 입궐하게 했습니다. …… 바라건대 깊은 충정을 가엾게 여기시고 옛일을 推明하시어 특별히 國子監에 내려 보내거나 辟雍에 거둬들여 학업에 나아가게 해 주시면, 여러 유생의 말석에 발을 들여 놓고, 博士의 앞에서 옷깃을 여미어, 좋은 소리로 회유하여 올빼미의 나쁜 소리를 봉황처럼 고치고, 꾀꼬리가 높은 나무로 올라가서 오랑캐처럼 고약하

---

7) 李燾 撰, 『續資治通鑑長編』 권506, 〈哲宗〉 '元符二年(1099)二月己卯'조에 "館伴高麗人使中書舍人郭知章言, '高麗人使言, 「國王欲遣士賓貢」, 此乃遠人悅慕敎化, 伏望採擇.' 詔令說諭, 許賓貢."이 보인다. 여기서 언급한 고려 사신은 고려 숙종이 왕위 계승을 알리기 위해 1098년 7월 13일 파견한 尹瓘과 趙珪를 지칭한다. 두 사신이 숙종의 의향을 中書舍人 郭知章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이다.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송나라 제과 응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遼나라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8) 『東人之文四六』 권2, 〈遣進士乞入學表〉.

9)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0년(1115) 7월 21일조.

게 우는 것을 면할 테니, 행여 성인의 道가 동쪽으로 오게 해 주신다면, 영원히 大明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10]

한 세기에 걸쳐 지속되던 국자감 입학 전통이 재개되기를 염원하면서, 작금의 좋은 기회를 맞아 5명의 유학생을 파견하니 입학을 수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표문은 金富軾의 형이자 國子司業을 역임하던 金富佾이 찬한 것이다. 김부일이 표문을 작성한 것은 知制誥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신은 이듬해 6월 귀국했고 예종은 사신이 가져온 徽宗의 조서를 乾德殿에서 받았다. 그 중에 자제 입학과 관련된 조서는 아래와 같다.

사신 王字之 등이 와서 올린 표문을 살펴보고, 학생 김단 등 5인을 國子監에 내려 보내거나 辟雍에 거둬들여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선대의 법을 계승하여 삼대를 좇아 학교를 일으키자 교화가 만방에 넘쳐 글 읽는 소리가 멀리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대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에는 옛 유풍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학생들을 보내 우리나라 문물을 두루 살펴보고 묵은 습속을 다 없애려 하니, 이는 천지의 온전함을 보여 중화의 풍속으로 변화시키려 함이며 또한 예전의 禮義를 미루어 길이 흠모하려 함이니 진실로 감탄하며 기뻐하노라.[11]

휘종은 자신의 문치와 교화를 과시한 뒤, 학생을 파견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중화의 기풍으로 변모할 것을 꾀하는 예종의 노력에 대해 치하의 뜻을 전했다. 고려 禮部試에 합격한 인재 중에서 우수한 자를 엄선하여 보낸 탓인지[12] 5명의 유학생 가운데 4명이

---

10) 『동문선』 권41, 表箋, 〈上大宋皇帝遣學生請入國學表〉 【金富佾】.

11)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1년(1116) 6월 3일조.

12) 『동문선』에 權適의 시문 5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유학길에, 혹은 중국에서 지은 시편이 보이거니와 특히 〈入宋船次上朴學士啓〉는 유학을 나

1117년(예종 12) 2월에 集英殿 親試에서 상사급제의 영예를 거머쥐었다.[13] 상사급제란 국자감에 재학 중인 上舍生 가운데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1115년 7월에 고국을 떠났으니 1년 반 만에 거둔 쾌거였다. 합격자는 권적, 조석, 김단, 견유저였는데 견유저와 강취정은 송나라에서 사망한바 귀국하지 못했다.

1117년 5월 謝恩使 李資諒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합격자 3명이 함께 돌아왔다.[14] 3명의 손에는 합격증과 임명장이 들려져 있었고 성적이 특히 좋았던 권적의 경우는 華貫崇秩에 제수되었다. 이자량은 휘종이 직접 짓고 글씨까지 쓴 조서를 가져왔고 예종은 건덕전에서 조서를 맞이했다. 조서는 다음과 같다.

> 내 어짊이 천하를 등지지 않아 교화가 미치는 곳에 안팎의 구별이 없어 감히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너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워 사대를 돈독히 하며, 예절과 법도를 삼가 지키면서 때마다 명령에 공손했다. 일국의 영화를 누리면서 선대 임금들의 업적을 준수하고 전대의 미풍을 계승하여 두려워하고 사모할 줄 알아서, 뱃길로 사신을 파견하여 스승에게 배우도록 했다. 내가 편전에 나아가 뜨락에서 기예를 시험한 뒤, 품계를 주어 그들의 귀국을 영예롭게 함으로써 너희 나라가 함께 正道에 이르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나는 진실로 너를 가상하게 여기노라.[15]

서는 길에 자신의 座主에게 올린 글로서 자신의 예부시 급제 과정과 유학생 선발 과정이 약술되어 있다.

13) 합격 후, 귀국 직전에 金端이 찬술한 〈謝釋奠陪位表〉가 『東人之文四六』(권9)과 『동문선』(권35)에 실려 있는데 고려 자제의 수학 과정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14) 세 사람은 귀국 직후에 늦은 밤까지 국왕 예종 앞에서 여러 경서를 읽기도 했는데 이 점을 통해 당시 그들의 성망을 가늠할 수 있다. 추후에 권적과 김단은 고시관으로서 급제자를 선발하기도 했고 외교 능력을 십분 인정받아 누차 사신으로 파견되거나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반을 맡았다.

15)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2년(1117) 5월 30일조.

휘종의 친필 조서를 받은 예종은 감격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1118년 8월에 鄭克永과 李之美를 사신으로 보내, 국자감 입학을 허락하고 상사급제와 관작을 내린 뒤 친필 조서까지 보내준 데 대해 사례했다. 이때 사신이 가져간 謝表는 예종의 御製·御筆이었다.

> 이처럼 세상에 드문 태평성대를 만났으니 더욱 정성을 다해 상국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제들을 보내 상국의 학교에 입학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학업이 일취월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또 올바른 도를 깨우쳐 줌으로써 유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궁정에서 그들 재주를 시험하고 관작을 주어서 영예롭게 귀국시켜 주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곡진하고 정성스런 말씀으로 가상히 여기는 글을 지으셨는데, 흡사 용과 뱀이 꿈틀거리는 듯한 신령스러운 필치로 붓을 종횡으로 휘두르셨고, 은하가 하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오묘한 문장을 펼치셨습니다.16)

이상에서 예종 연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나라 국자감 입학을 요청하는 시점부터 유학생이 제과에 급제하여 귀국한 뒤 황제에게 사례하는 단계까지 양국이 수수했던 請表와 謝表, 각종 詔書에 대해 일별해 보았다. 국자감 입학 請表는 당시 知制誥가 작성했고 황제에게 보내는 謝表는 예종이 찬하고 글씨까지 직접 썼다. 그 과정에서 휘종이 보낸 조서 2편이 고려 조정에 전달되었다.

16)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3년(1118) 8월 8일조.

3. 고려의 對중국 유학과 제과 응시

1) 宋나라 국자감 입학 및 제과 급제자

고려 자제의 중국 유학 및 과거 응시에 관한 정보가 『고려사』 「選擧志」 '制科'에 시기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송나라 국자감 입학 및 제과 응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景宗 원년(976), 金行成을 宋에 보내 국자감에 입학시켰다. 《경종》 2년, 金行成이 송에서 등제했다.[景宗元年, 遣金行成如宋, 入學國子監. 二年, 行成在宋登第.]

② 《成宗》 5년(986), 崔罕과 王琳을 宋에 보내 입학시켰다. 《성종》 11년(992), 崔罕과 王琳이 賓貢科에 급제하여 秘書郞에 제수되었다.[五年, 遣崔罕·王琳如宋入學. 十一年, 罕·琳登賓貢科, 授秘書郞.]

③ 穆宗 원년(998), 金成積[17]이 宋에 들어가 등제했다.[穆宗元年, 金成積入宋, 登第.]

④ 肅宗 4년(1099) 2월, 宋에서 조서를 내려 擧子의 賓貢科 응시를 허락했다.[肅宗四年二月, 宋詔許擧子賓貢.]

⑤ 睿宗 10년(1115) 7월, 金端, 甄惟底, 趙奭, 康就正, 權迪[18]을 宋에 보내 태학에 입학시켰다.[睿宗十年七月, 遣金端·甄惟底·趙奭·康就正·權迪如宋, 赴大學.]

---

17) 원문의 金成積이란 이름은 『고려사』에 한 번 보인다. 『고려사』를 인용한 『고려사절요』와 『동사강목』에 金成積으로 되어 있을 뿐, 『고려사』를 위시하여 여타 중국 전적과 고려 문집에는 모두 金成績으로 되어 있다.

18) 원문의 權迪이란 이름은 여타 문집류나 선집류, 『고려사』 기사 등에는 權適으로 되어 있다.

⑥ 《예종》 12년(1117), 權迪, 趙奭, 金端이 上舍及第했다.[十二年, 迪·奭·端登上舍及第.]

976년 입학하여 이듬해 등제한 金行成은 송나라 국자감에 최초로 입학한 외국인이자 고려 자제다.[19] 위 인용문에 의하면 김행성이 처음 제과에 급제한 이래로 남송이 망할 때까지 도합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는 김행성(977), 최한·왕림(992), 김성적(998), 권적·조석·김단(1117) 순이다. ④에서 볼 수 있듯이 1099년 송나라에서 고려 자제의 빈공과 응시를 다시 수락했다. 그 전까지 송나라 제과에서 4명이 합격했는데 합격한 해는 정축년(977), 임진년(992), 무술년(998)이다. 이를 통해 연도 간지에 丑, 辰, 未, 戌이 들어간 시험, 즉 식년 정기시 때 치러진 제과에서 합격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권적, 조석, 김단이 1117년 정유년에 합격한 시험은 식년시가 아닌, 비정기시로 설행된 親試다.[20] 그리고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한과 왕림은 992년 급제할 때까지 무려 6년 동안 국자감에서 수학했다.[21] 두 사람이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오른 점을 감안한다면[22] 귀국했을 무렵 송풍의 유려한 시

---

19) 章如愚 撰, 『群書考索』 後集 권30, 「士門, 蕃學」. "宋朝, 太宗興國元年十二月己未, 是歲高麗國人金行成始入學於國子監." 김행성은 제과 급제 후에 송나라에서 벼슬하며 귀국하지 않았다. 고려 成宗이 표문을 보내 돌려보내 주기를 요청했지만 김행성 본인의 바람에 따라 귀국하지 않았다. 徐乾學 撰, 『資治通鑑後編』 권11, 「太宗」. "故殿中通判州事金行成, 本高麗人, 賓貢擧進士中第. 高麗國王表乞放還, 行成自以筮仕中朝, 思有以報, 不願歸本國."

20) 崔瀣, 『拙藁千百』 권2, 〈送奉使李中父還朝序〉. "政和中, 又親試權適·金端等四人, 特賜上舍及第."

21) 『宋史』에는 王琳이 王彬으로 되어 있다. 『송사』에 의하면 왕빈과 최한은 급제하자마자 將仕郎 守秘書省校書郎에 제수된 후 귀국했다. 귀국 후 고려 成宗이 宋 太宗에게 보낸 謝表가 『송사』에 실려 있다. 『宋史』 권487, 「外國列傳」, 〈高麗〉. "上親試諸道貢擧人, 詔賜高麗賓貢進士王彬·崔罕等及第, 旣授以官, 遣還本國."

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했으며 중국어 실력은 원어민을 방불케 했을 것이다. 국자감 입학을 위해 출국한 자가 제과에 급제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6년이다. 유학생 중에 합격하지 못한 채 귀국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후에도 원나라와 명나라 제과 응시는 이루어졌으나 국자감 입학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李種徽(1731~1797)는 『고려사』 「選擧志」를 읽고 "중국 制科에 오른 자는 송나라가 7명이고 원나라가 8명인데 金濤가 또 명나라 제과에 합격했으니 그 성대함이 이와 같다."라 했다.[23] 이종휘의 설명에 의하면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제과에 급제한 고려인은 각각 7명, 8명, 1명이다. 이것은 『고려사』 기록을 준용한 견해다.

拙翁 崔瀣가 李穀을 전송하는 글에도 송나라 제과 급제자에 관한 언급이 보인다.

> 우리 고려에 이르러서도 송나라로 선비를 보냈다. 淳化 연간에 孫何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王彬과 崔罕이 합격했고, 咸平 연간에 孫僅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金成績이 합격했으며, 景祐 연간에 張唐卿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康撫民이 합격했고, 政和 연간에 또 權適, 金端 등 4명을 친히 시험하여 특별히 上舍及第를 내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22) 『宋史』 권487, 「外國列傳」, 〈高麗〉. "彬·罕等幼從翰繫, 嗟混迹於嵎夷, 不憚蓬飄, 早賓王於天邑." 이채로운 점은 밑줄 친 주석 인용문처럼 왕빈과 최한 이름 뒤에 복수형 의존명사 '等'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 이외에 급제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일단 상정해볼 수 있다. 『송사』 권5, 「本紀」, 〈太宗二〉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戊戌, 親試禮部擧人, 辛丑, 親試諸科擧人, 戊午, 以高麗賓貢進士四十人, 並爲秘書省秘書郎, 遣還."으로 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고려 빈공진사 40명이 秘書郎에 제수된 셈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요망된다. 『資治通鑑後編』 권15, 「宋紀十五」에도 "戊午, 以高麗賓貢進士四十人, 並爲秘書郎, 遣還."이 보인다.

23) 李種徽, 『修山集』 권13, 高麗史, 〈選擧志〉. "至有登於中朝制科者, 宋七人元八人, 而金濤又中皇明制科, 其盛如此"

대대로 인재가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4]

최해가 위 글을 찬술한 것은 1335년(충숙왕 복위4)이다. 상대적으로 송나라 때와 가까운 시대를 살았거니와 최해 본인과 이곡도 모두 제과에 합격한바, 조선시대 기록에 비해 보다 신빙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합격자 성명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의 고시관 성명까지 기록한 것은 빙거할 만한 자료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특이한 점은 景祐 연간에 張唐卿의 주관하에 치러진 시험에서 康撫民이 합격했다는 것과 政和 연간에 합격한 자가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사실이다.

박학의 기저 위에 고증학적 학문체계를 구축한 李裕元은 송나라 과거에 급제한 고려 인물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송나라 과거에서 방목 끝에 이름을 붙인 자는 고려의 金行成, ①康戩, 崔罕, 王彬, 金成績, ②康撫民, 權適, 趙奭, 金瑞, ③康就正이다.[25]

이유원이 제시한 송나라 제과 급제자는 10명인데 다음 세 가지는 주목을 요한다. 첫째 康戩이란 인물을 처음 언급했고, 둘째 최해와 마찬가지로 康撫民을 급제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셋째 康就正이 1117년 권적, 조석, 김단과 함께 합격한 것으로 설명했다.

첫째, 이유원은 강전의 합격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아마도 『宋史』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강전 관련 기사를 접했을 것이다.

고려의 信州 永寧 사람인 康戩은 字가 休祐요, 부친은 允인데 3대가 兵部侍郎이 되었다. 강전은 소싯적에 학문을 좋아했다. 당시 紇升

24) 『拙藁千百』 권2, 〈送奉使李中父還朝序〉.

25) 李裕元, 『林下筆記』 권11, 文獻指掌編, 〈東人爲中州科〉. "宋朝科附名榜尾者, 高麗金行成・康戩・崔罕・王彬・金成績・康撫民・權適・趙奭・金瑞・康就正."

이 契丹과 교전하자 강전은 부친을 따라 木葉山 밑에서 싸웠는데 화살 두 발을 연거푸 맞았으나 낯빛이 변하지 않았다. 후에 흘승이 거란을 함락시키자 강전은 墨斗嶺에서 은거하다가 다시 黃龍府에 이르러 샛길로 고려에 돌아가니, 그때까지 부친이 살아 있었다. 開寶 연간에 강윤은 강전에게 빈공을 따라가 국자감에서 학업을 익히게 했다. 太平興國 5년(980, 경종 5) 진사시에 급제하여 大理評事로 벼슬길에 오른 뒤 湘鄕縣을 맡았고 著作佐郞으로 두 차례 전임했으며 江陰軍·江州를 맡았다. 관직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소문이 나서 太常博士로 승진했다.[26]

『송사』〈고려열전〉에는 강전의 인적 사항과 소싯적 활약상을 위시하여 개보 연간에 부친의 권유로 빈공을 따라 국자감에 입학한 뒤 980년 진사에 급제한 사실[27], 이후의 관력 등이 상술되어 있다. 강전도 김행성처럼 제과 급제 후, 중국에서 관직을 지내다가 생을 마쳤다.

둘째, 강무민의 합격 정보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다음은 『玉海』에 수록된 〈咸平賓貢〉 기사의 일부다.

景祐 원년(1034) 고려의 빈공진사 康撫民을 舍人院에 불러 시험을 치렀고, 4월 3일에 同出身을 하사했다.[28]

---

26) 『宋史』 권487, 列傳, 外國3, 〈高麗〉. "高麗信州永寧人康戩, 字休祐, 父允, 三世爲兵部侍郎. 戩少好學. 時紇升與契丹交兵, 戩從允戰木葉山下, 連中二矢, 神色不變. 後陷契丹, 遁居墨斗嶺, 又至黃龍府, 間道得歸高麗, 時允猶在. 開寶中, 允遣戩隨賓貢肄業國學. 太平興國五年, 登進士第, 解褐大理評事, 知湘鄕縣, 再遷著作佐郞, 知江陰軍·江州. 歷官以淸白幹力聞, 改太常博士."

27) 980년은 庚辰年이므로 식년 정기시 때 치러진 제과에 급제한 것으로 추정되거니와 국자감 입학부터 급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부친의 권유로 빈공을 따라 국자감에 입학했다는 것으로 보아, 국자감 입학생이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 王應麟 撰, 『玉海』 권116, 選擧, 科擧3, 〈咸平賓貢〉. "景祐元年, 高麗賓貢進士康撫民, 召試舍人院, 四月三日, 賜同出身."

1034년 빈공진사 康撫民을 舍人院에서 시험을 치러 동년 4월에 同出身[29]을 하사했다는 기록이다.[30] 사인원은 中書省에 속한 관서로서 詔令의 초고 작성을 담당했다. 『옥해』는 남송 말기, 원나라 초기의 학자 王應麟이 편찬한 방대한 분량의 유서다. 이 책은 14세기에 이미 고려에 유입되었으며[31] 조선에서도 국초부터 국가 전장의 보고로서 적극 활용했다.[32] 〈함평빈공〉 조에는 강무민 외에 康戩(980), 金成績(998)의 급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33]

셋째, 이유원은 康就正이 1117년 親試에서 권적, 조석, 김단과 함께 합격한 것으로 설명했다. 전술했듯이 『고려사』 選擧志에 의하면 국자감에 입학한 5명 가운데 권적, 조석, 김단 3명이 상사급제에 올랐다. 그런데 崔瀣는 권적, 김단 등 4명이 상사급제를 하사 받았다고 했고[34] 이유원은 기존의 3명에 강취정을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취정이 아닌, 견유저가 합격한 것이 분명하다.

> 政和 7년(1117) 3월 庚寅에 숭정전에 행차하여 고려 학사 權適 등에게 상사급제와 벼슬을 내렸다. 권적은 承事郞으로 삼고, 趙奭과 金瑞는 文林郞으로 삼고, 甄惟氏는 從事郞으로 삼고 나서, 進奉使 李資諒을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35]

---

29) 『宋史』에 의하면 진사과에 1·2등으로 합격한 자를 及第, 3등으로 합격한 자를 出身, 4·5등으로 합격한 자를 同出身이라 했다. 『宋史』 권155, 選擧志, 〈選擧〉. "上二等曰及第, 三等曰出身. 四等·五等曰同出身."

30) 『續資治通鑑長編』 권114, 「仁宗」에도 "夏四月辛卯, 賜高麗國賓貢進士康撫民同出身, 仍附春榜."이 보인다.

31) 『고려사』 권40, 世家, 공민왕 13년(1364) 6월 23일. "乙卯, 明州司徒方國珍遣照磨胡若海, 偕田祿生來, 獻沈香·弓矢及『玉海』·『通志』等書."

32) 『태종실록』 11년(1411) 5월 18일조.

33) 『玉海』 권116, 選擧, 科擧3, 〈咸平賓貢〉. "太平興國五年, 高麗康戩擧進士, 初肄業國學. 咸平元年二月戊申, 賜高麗賓貢進士金成績及第, 附春榜."

34)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2년(1117)에도 "황제가 이전에 집영전에서 권적 등을 대상으로 책문으로 시험을 쳐서 권적 등 4명에게 상사급제를 내렸다.(帝初親策試適等于集英殿, 賜適等四人上舍及第)"라 했다.

위 기록은 南宋의 章如愚가 저술한 『群書考索』의 〈蕃學〉 기사의 일부다. 권적 등 4명이 숭정전에서 치러진 親試에서 상사급제와 품계를 받았는데 당시 견유저는 종사랑에 제수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견유저를 송나라 제과 급제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3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송나라 제과 급제자를 10명으로 비정해 보았다.[37] 급제자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고려사』「선거지」에 실리지 않은 인물은 '※'로 표시했다.

시기	급제자	급제 후 귀국 여부	출전
977년(경종 2)	金行成	귀국 ×	
980년(경종 5)	※ 康戩	귀국 ×	『宋史』, 『林下筆記』
992년(성종 11)	崔罕	귀국 ○	
	王琳		
998년(목종 원년)	金成績	귀국 ○	
1034년(덕종 3)	※ 康撫民	귀국 ×	『玉海』, 『林下筆記』
1117년(예종 12)	金端	귀국 ○	『群書考索』 『宋會要輯稿』
	趙奭		
	權適		
	※ 甄惟底	귀국 ×	

35) 『群書考索』 後集 권30, 「士門, 蕃學」. "政和七年三月庚寅, 御崇政殿, 高麗學士權適等, 上舍及第釋褐. 以適爲承事郎, 趙奭·金瑞幷文林郎, 甄惟底從事郎, 令隨進奉使李資諒歸本國." 이유원이 송나라 제과 합격자를 기술하며 『군서고색』을 참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유원의 기록과 『군서고색』에 공히 金端이 金瑞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36) 하지만 견유저와 강취정은 송나라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 『고려사』 권14, 세가, 예종 12년(1117) 5월 30일조. "康就正·甄惟底二人, 死于宋." 강취정은 친시를 치르기 전에 사망했고 견유저는 상사급제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37) 10명 중에서 榜目을 통해 고려 禮部試 급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權適뿐이다. 권적은 국자감에 입학하기 3년 전인 1112년(예종 7) 19세의 나이로 병과 1위로 급제했다.

한편 1169년(의종 23) 정월 초하루에 의종은 신년 하례를 받고 나서, 신년 하례 표문을 대신 찬술하더니 문신들에게 돌려보게 했다. 이에 大學官이 六管 학생을 거느리고 중국 제과 급제자와 함께 각각 표문을 올려 稱賀한 바 있다.[38] 송나라 제과의 마지막 급제자를 배출한 시기가 1117년이다. 그 사이에 52년이란 시간차가 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1117년 이후의 합격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9]

1124년 휘종 연간에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개경에 한 달간 머물렀던 徐兢(1091~1153)은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

> 진사의 명칭은 하나가 아니어서 王城 안에서는 土貢이라 하고, 郡邑에서는 鄕貢이라 한다. 국자감에 모여 거의 4백 명을 合試한 뒤에 왕이 친히 시험하여 詩·賦·論의 세 가지 문제에 합격한 자에게 벼슬을 준다. 政和 연간에 학생 金端 등을 入朝케 했는데 은혜를 입어 급제했다. 이로부터 선비를 뽑을 때 간간이 經術과 時務策으로 그 공부를 비교하고 우열을 시험하여 고하를 정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학을 공부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는 중국을 향모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40]

고려 국왕이 친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할 때 통상 詩·賦·論 세 과목을 출제했으나 김단 등이 송나라 제과에서 급제한 뒤 경술과 시무책이 시험 과목에 포함되기도 한 것이다. 서긍에 의하면 당시 고려는 聲律을 숭상할 뿐 經學에는 힘쓰지 않았고 고려의 문장은 당나라의 폐단과 비슷했다고 한다.[41] 여하튼 고려에서 경학과 시무책으로 선비를 뽑기 시작한 것이 송나라 制科 응시와 무관치 않았던 것이다.

---

38) 『고려사』 권19, 세가, 毅宗 23년(1169) 1월 1일조. "大學官又率六管學生, 與中朝制科者, 各上表稱賀, 賜酒醑."

39) 金端, 趙奭, 權適 중에 생몰년이 파악되는 인물은 권적(1094~1147)이 유일하다.

40) 徐兢, 『高麗圖經』 권19, 〈進士〉.

41) 위의 책, 권40, 〈儒學〉.

2) 元나라 제과 응시 및 급제자

『고려사』「선거지」 '制科'에 수록된 원나라 제과 응시 및 합격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충숙왕 원년(1314) 정월, 元에서 과거에 관한 조서를 반포하여, 합격자 3명을 선발하여 會試에 응시토록 했다.[忠肅王元年正月, 元頒科擧詔, 令選合格者三人, 貢赴會試.]

② 《충숙왕》 2년(1315) 정월, 朴仁幹 등 3명을 보내 응시하게 했으나 모두 급제하지 못했다.[二年正月, 遣朴仁幹等三人應擧, 皆不第.]

③ 《충숙왕》 4년(1317) 12월, 安震을 보내 응시하게 했다.[四年十二月, 遣安震應擧.]

④ 《충숙왕》 5년(1318), 安震이 제과 第3甲 15名으로 급제했다.[五年, 震中制科第三甲十五名.]

⑤ 《충숙왕》 7년(1320) 10월, 安軸과 崔瀣, 李衍宗을 보내 응시하게 했다.[七年十月, 遣安軸·崔瀣·李衍宗應擧.]

⑥ 《충숙왕》 8년(1321) 崔瀣가 제과에 급제하여 칙명으로 遼陽盖州判官에 제수되었다.[八年, 瀣中制科, 勅授遼陽盖州判官.]

⑦ 《충숙왕》 10년(1323) 12월, 安軸과 趙廉, 崔龍甲을 보내 응시하게 했다.[十年十二月, 遣安軸·趙廉·崔龍甲應擧.]

⑧ 《충숙왕》 11년(1324), 安軸이 제과에 급제했다.[十一年, 軸中制科.]

⑨ 충숙왕 복위 2년(1333), 李穀이 제과 第2甲으로 급제하여 翰林國史院 檢閱官에 제수되었다.[後二年, 李穀中制科第二甲, 授翰林國史

院檢閱官.]

⑩ 충혜왕 복위 3년(1342), 李仁復이 제과에 급제하여 大寧路錦州判官에 제수되었다.[忠惠王後三年, 李仁復中制科, 授大寧路錦州判官.]

⑪ 충목왕 원년(1344) 11월, 尹安之와 安輔, 郭珚을 보내 응시하게 했는데 이듬해 안보가 제과에 급제했다.[忠穆王初年十一月, 遣尹安之·安輔·郭珚應擧, 明年, 輔中制科.]

⑫ 《충목왕》 3년(1347) 9월, 尹安之와 白彌堅, 朴中美를 보내 응시하게 했다.[三年九月, 遣尹安之·白彌堅·朴中美應擧.]

⑬ 충정왕 원년(1349), 尹安之가 제과에 급제하여 大寧路判官에 제수되었다.[忠定王元年, 安之中制科, 授大寧路判官.]

⑭ 《충정왕》 2년(1350), 白彌堅과 金仁琯을 보내 응시하게 했다.[二年, 遣白彌堅·金仁琯應擧.]

⑮ 공민왕 2년(1353), 李穡을 書狀官으로 삼아 응시하게 했는데, 3년(1354)에 이색이 제과 第2甲 第2名으로 급제하여 應奉翰林文字에 제수되었다.[恭愍王二年, 以李穡充書狀官, 應擧, 三年, 穡中制科第二甲第二名, 授應奉翰林文字.]

①은 1314년 원나라 仁宗이 반포한 制科 응시 관련 내용으로서 합격자 3명을 선발하여 원나라 會試에 응시하도록 했다. 송나라 때는 유학생 및 응시생의 숫자가 제각각이었지만 원나라 조정에서는 제과 응시생을 합격자 3명으로 한정했다. ③과 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명 이하의 합격자를 보내라는 의미다. 여기서 합격자란 것은 征東省 鄕試 합격자를 가리킨다. 정동성 향시는 고려 예부시 급제자를 대상으로 원나라 제과 응시자를 선발하는 시

험이다.[42] 향시라 부른 까닭은 중국 과거를 기준으로 初試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응시생을 처음 파견한 것은 1315년(충숙왕 2)인데 합격자가 없었다. 그 후 1318년 安震이 등제한 이래로 1354년 李穡이 급제할 때까지 36년 동안 8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합격자는 안진(1318), 최해(1321), 안축(1324), 이곡(1333), 이인복(1342), 안보(1345), 윤안지(1349), 이색(1354)이다. 합격 연도를 따져보면 3년마다 제과를 거행하되 당년 간지에 子, 卯, 午, 酉가 들어간 해에 시험이 치러졌다. 합자자 중에 윤안지만 1349년, 즉 기축년에 급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1348년, 무자년의 오기로 추정된다. 이곡과 이인복의 경우는 등제 연도만 기록되고 파견 연도가 보이지 않는다.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제과가 설행되기 한 해 전 9월에서 당년 정월 사이에 응시생을 보내는 패턴을 유추할 수 있다.[43] 이곡과 이인복도 비슷한 시기에 제과 응시차 출국했을 터이다. ⑭에 의하면 1350년에 백미견과 김인관, 2명이 제과에 응시했다. 당시 槃隱 田祿生도 정동성 향시에 합격하여 응시 자격을 얻었지만, 당로자의 질시를 받아 끝내 응시하지 못했다.[44]

위 인용문에 적힌 제과 응시자 및 급제자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기재 순서는 고려 예부시 급제 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예부시 급제 연도 및 성적, 예부시 급제부터 제과 파견까지의 시간적 간

---

42) 제과 응시자를 선발하는 시험은 東堂試, 東堂監試, 應擧試, 征東省 鄕試, 征東鄕試 등으로 불렸다. 이곡은 1320년 예부시에 급제하고 12년 뒤 정동성 향시에서 제1명으로 합격했다. 이색의 경우는 1353년 5월 예부시에서 장원하고 나서 동년 가을에 정동성 향시에서 제1명으로 합격했다.

43) 1315년(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도 가을과 겨울에 응시생을 보냈다.

44) 田祿生, 『槃隱逸稿』 권6, 부록, 〈槃隱先生家狀〉. "先生與白公彌堅·金公仁琯同發解, 以嘗究治權豪, 故疾而沮之, 未得應擧."; 『槃隱逸稿』 권6, 부록, 〈尊慕錄附〉. "金仁琯【慶州人. 忠穆丁亥登第, 連魁三場, 王賜紅牌, 許着金花帽, 親授紅牌, 寵渥尤厚. 忠定庚寅, 以前典客寺丞, 與先生同中征東鄕試.】"

극, 제과 파견 연도 및 당시 연령, 제과 합격 연도를 병기했다.

예부시 급제 연도	성명	예부시 성적	예부시~제과 파견 간극	제과 파견 연도(차례)	파견 연령	제과 급제 연도
1303년	崔瀣	병과	17년	1320 (3)	34세	1321
	李衍宗	병과	17년	1320 (3)		
1307년	安軸	을과 2위	13년	1320 (3)	39세	
			16년	1323 (4)	42세	1324
1313년	安震	**장원**	4년	1317 (2)	25세	1318
1315년	朴仁幹	**장원**	0년	1315 (1)		
	趙廉	병과 1위	8년	1323 (4)	24세	
1320년	崔龍甲	**장원**	3년	1323 (4)		
	李穀	을과 3위	12년	**[1332] (5)**	35세	1333
	安輔	병과 2위	24년	1344 (7)	43세	1345
1326년	李仁復	병과 2위	15년	**[1341] (6)**	34세	1342
1347년	金仁琯	**장원**	3년	1350 (9)		
	尹安之			1344 (7)		
				1347 (8)		**1349[1348]**
	郭珚			1344 (7)		
	白彌堅			1347 (8)		
				1350 (9)		
	朴中美			1347 (8)		
1353년	李穡	**장원**	0년	1353 (10)	26세	1354

응시자 중에 윤안지, 곽연, 백미견, 박중미 네 사람의 예부시 급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최해와 이연종은 정확한 예부시 성적이 전하지 않는다. 나머지 12명의 제과 응시자를 살펴보았을 때, 예부시에서 乙科 1위, 즉 장원을 차지한 인물이 5명이거니와 나머지 응시자도 丙科 2위 이상의 등차를 받았다.[45] 우수한 실력이 검증된 예부시 합격자들이 정동성 향시에서 경합을 벌였고 그 중에서 월등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파견한 것이다.

45) 원나라 제과 응시자는 모두 예부시 최종 급제자 33명 중에서 상위 5등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다.

예부시 급제부터 제과 파견까지의 시간적 간극은 시기별로 천차만별이다. 예부시에 급제하자마자 당년에 응시 길에 나선 자는 최초의 원나라 제과 응시자인 朴仁幹 등 3명과 마지막 응시자인 李穡뿐이다. 박인간은 1315년 1월 설행한 예부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46] 원나라 제과가 당년 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이때에는 정동성 향시를 치르지 않고 예부시 을과 1위부터 3위까지를 곧장 파견했을 것이다. 이색의 경우는 1343년 봄에 예부시에서 장원한 뒤, 동년 가을에 征東省 鄕試에서 장원하자마자 출국하여 이듬해 2월과 3월에 會試와 殿試에서 각각 합격했다.

박인간과 이색의 경우를 제외하면 예부시에 급제하고 나서 3년~24년이 흐른 뒤 제과에 응시했다. 安軸은 13년과 16년이 지난 뒤 응시했고, 李仁復은 15년 뒤 응시했으며, 安輔는 무려 24년이 지나서 43세의 나이로 응시했다. 통상 예부시에 급제하고 10여 년 이상이 지난 뒤 학문과 문장력이 완숙한 수준에 올랐을 때 제과에 응시한 셈이다. 제과 합격자 가운데 30대 중후반과 40대 인물이 산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1318년 제과에 합격한 安震은 이미 5년 전에 예부시에서 장원을 차지했거니와 제과에 응시할 때 藝文館檢閱을 역임하고 있었다.[47] 1345년 제과에 등제한 安輔는 25년 전인 1320년에 19세의 나이로 예부시에 급제하여 문한직을 역임한 수재였다.[48] 1351년 제과에서 고배를 마신 金仁琯도 1347년 고려에서 三場壯元한 덕분에 여러 특혜를 받을 만큼 문재가 탁월했다.[49] 1354년 제과

---

46) 『고려사』 권34, 세가, 충숙왕 2년(1315) 1월 12일조. "賜朴仁幹等及第, 遣仁幹等三人, 應擧于元."

47) 『고려사』 권34, 세가, 충숙왕 즉위년(1313) 9월 1일조; 충숙왕 4년(1317) 12월 6일조.

48) 『고려사』 권109, 열전, 〈安輔〉.

49) 『고려사』 권74, 志, 「선거, 과목」. "忠穆王三年十月, 金仁琯連魁三場, 賜馬紅鞓, 許着金花帽. 王親授紅牌, 寵渥尤厚."

에 급제한 李穡 역시 한 해 전에 장원을 차지했거니와 그의 부친인 李穀은 예문관검열을 역임하다가 정동성 향시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제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50] 제과 합격 여부를 막론하고 제과 응시자가 지녔던 학문적 역량을 십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송나라 때와는 달리 국자감에 입학하지 않고 제과에만 응시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유학생활을 견디려면 가능한 한 건장한 나이에 가야만 했지만, 원나라 때에는 제과 합격이 유일한 목적이었으므로 문한직을 충분히 역임한 발군의 능문자 중에서 응시자를 엄선하여 파견했다. 바꾸어 말하면 완숙한 문신에게 제과 응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송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원나라 제과 급제는 문신으로서 최고의 영예였다.[51] 국자감 유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제과에서 고배를 마시면 곧장 귀국해야만 했다. 이채로운 점은 安軸, 尹安之, 白彌堅의 경우처럼 낙방하고 나서 3년 뒤 재차 도전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안축과 윤안지는 결국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고려사』「선거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李種徽는 당연히 원나라 제과에 합격한 자가 8명이라고 기술했다.[52] 그런데 李裕元의 경우는 원나라 제과 합격자를 한 명 더 추가했다.

> 延祐 5년(1318)에 안진, 至治 원년(1321)에 최해, 泰定 원년(1324)에 안축, 元統 원년(1333)에 이곡, 至正 6년(1346)에 안보, 지정 7년(1347)에 윤안지, 지정 9년(1349)에 이인복, 지정 13년(1353)에 이색·金升彦까지 총 9명이다.[53]

---

50) 『고려사』 권109, 열전, 〈安輔〉. "忠惠元年, 遷藝文檢閱. 忠肅後元年, 中征東省鄕試第一名, 遂擢制科. 前此, 本國人雖中制科, 率居下列, 穀所對策, 大爲讀卷官所賞, 置第二甲. 宰相奏, 授翰林國史院檢閱官."

51) 『壁隱逸稿』 권6, 부록, 〈壁隱先生家狀〉. "高麗時, 以中朝制科, 爲士林勝事."

52) 『修山集』 권13, 高麗史志, 〈選擧志〉.

53) 『林下筆記』 권11, 文獻指掌編, 〈東人爲中州科〉. "延祐五年, 安震, 至治

이유원은 金升彦이 이색과 함께 합격한 것으로 기술했다. 김승언은 『고려사』를 통틀어 한 번도 보이지 않거니와 여타 중국 문헌에도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원이 『동국여지승람』 '인물'조에 실린 기사를 참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개연성이 매우 희박하다.[54] 이색과 동시에 합격했다면 同年 관계가 성립되는데 『牧隱集』에조차 그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개별 족보나 지리지 기록을 인용한 조선 후기 문헌은 취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55] 이밖에 안보, 윤안지, 이인복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유원은 합격 시기와 인물 순서를 기술하는 데도 적잖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필자의 우견으로는 원나라 제과 합격자 명단에 趙廉도 추가해야 할 듯하다. 『고려사』「선거지」에는 1324년 안축, 조렴, 최룡갑이

元年, 崔瀣, 泰定元年, 安軸, 元統元年, 李穀, 至正六年, 安輔, 七年, 尹安之, 九年, 李仁復, 十三年, 李穡·金升彦九人."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咸鏡道, 安邊都護府, '人物'조. "金升彦, 中元朝制科, 有才行." 이밖에 김승언을 원나라 제과 급제자로 기술한 인물은 洪敬謨와 韓致奫 두 사람뿐인데 한치윤은 『동국여지승람』을 그 출전으로 제시했다. 洪敬謨, 『冠巖全書』 책24, 〈鶴城志〉; 韓致奫, 『海東繹史』 권18, 禮志, 〈學禮〉.

55) 이규경의 〈東人參中國榜眼辨證說〉(『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篇○治道類, 科擧)에 의하면, 厚菴 李萬運이 찬술한 『東國榜眼』에는 중국 제과에 합격한 29명의 고려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송나라 제과 합격자가 12명, 원나라 제과 합격자가 16명, 명나라 제과 합격자가 1명이었다. 이 중에 이만운이 새롭게 추가한 송나라 제과 급제인은 金祿, 賓于光, 趙天赫이고, 원나라 제과 급제인은 辛裔, 李承慶, 辛蔵, 李球, 李天驥, 金升彦, 崔彪이다. 『동국방안』은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규장각 소장 『登科錄前編』(古4650-10)을 통해 추정해 보건대 개별 문중의 족보류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조 기사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규경은 이밖에 『全唐詩』, 『靑城集』, 『신증동국여지승람』, 『蔚珍邑志』 등의 전적을 인용하면서 崔光胤, 朴充, 全元發, 白彌堅, 張良素 등 5명을 새로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용 기사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史書에 해당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빙거할 만한 자료가 발견될 때까지는 원용을 유보해야 한다.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制科總目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과에 응시하여 안축만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 실린 〈조렴열전〉에는 충숙왕 때 예부시에 급제한 뒤 원나라 제과에 합격하여 遼陽等路摠管知府事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거니와[56] 權近이 찬한 「東賢事略」에도 天曆 연간에 황조 제과에 합격하여 瀋陽等路摠官知府事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57] 합격 시기가 자못 구체적이고 제수된 관직명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327년 제과에 재응시하여 합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원나라 제과 합격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급제자	급제 성적	비고
1318년(충숙왕 5)	安震	第3甲 第15名	
1321년(충숙왕 8)	崔瀣		遼陽路蓋州判官 제수
1324년(충숙왕 11)	安軸		
1327년(충숙왕 14)	※ 趙廉		〈趙廉列傳〉, 「東賢事略」
1333년(충숙왕 복위 2)	李穀	第2甲	翰林國史院檢閱官 제수
1342년(충혜왕 복위 3)	李仁復		大寧路錦州判官 제수
1345년(충목왕 1)	安輔		
1348년(충목왕 4)	尹安之		大寧路判官 제수
1354년(공민왕 3)	李穡	第2甲 第2名	應奉翰林文字 제수

安震은 원나라 제과의 최초 급제자로서 귀국하자마자 藝文館應敎로 특진했다.[58] 원나라 제과에 합격한 뒤 원나라 벼슬을 제수

56) 『고려사』 권109, 열전, 〈趙廉〉. "趙廉, 字魯直, 淳昌人. 忠肅朝登第, 又中元朝制科, 授遼陽等路摠管知府事."

57) 『陽村集』 권35, 「東賢事略」, 〈趙密直諱廉〉. "忠肅王乙卯, 朴仁幹榜登科. 天曆戊辰, 中皇朝制科, 勅授瀋陽等路總管知府事."

58)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 5년(1318) 6월조. "以藝文檢閱安震中制科, 擢爲藝文應敎·摠部直郎. 權適之後, 震始登制科也." 이 기록에 따르면 權迪이

받아 일정 기간 근무한 것은 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해를 위시하여 조렴, 이인복, 윤안지 등은 지방관의 일종인 判官직에 임명되었고, 제2갑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곡, 이색 부자는 翰林國史院과 翰林院에서 근무했다. 이곡과 이색은 문한직을 역임한 덕택에 중국 최고의 문사와 교유하며 학문과 문학 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59] 눈에 띄는 점은 제과 합격자 9명 가운데 順興安氏가 3명이고[60] 韓山李氏가 2명이라는 사실이다.[61] 두 집안에서 전체 합격자의 과반을 배출한 셈이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 차지했던 두 가문의 위상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제과 급제자가 귀국하게 되면 초고속 승진이 보장되었고[62] 문한직을 담당하는 것이 상례였다. 과거를 설행할 때 으레 고시관을 맡았으므로 座主로서 수많은 門生을 거느리며 정계와 문단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14세기 중반기는 원나라 제과 출신이 고려 조정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며 학술과 문예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시기였다. 제과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원나라 수도에서 6년이나 머물며 식견을 넓힌 李齊賢을 위시하여 安震, 安軸, 李穀, 李仁復, 李穡 등의 제과 급제자가 문단의 중심에 서 있

송나라 제과에 합격한 지 무려 200년이 지나서 安震이 원나라 제과에 합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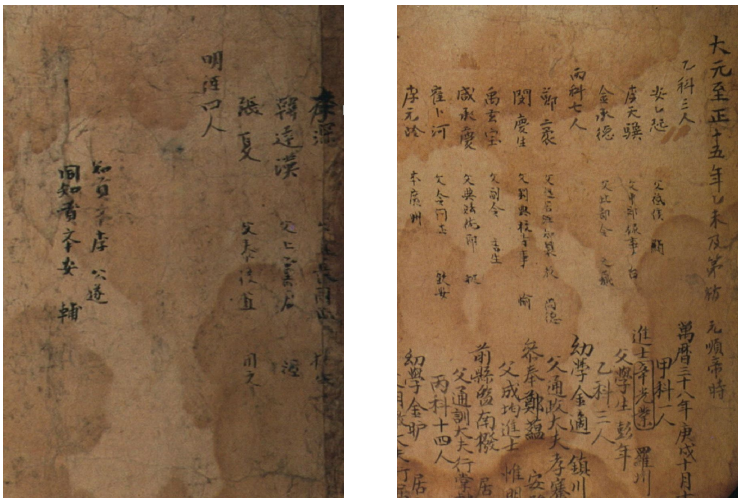
59) 『동문선』 권84, 〈東人文序〉 【崔瀣】; 李穡, 『牧隱集』 附錄, 〈牧隱詩精選序〉 【達城君徐居正】.

60) 특히 안축, 안보, 安輯 3형제는 모두 예부시에 급제했는데 이 중에 2명이 제과에 합격했다.

61) 2대에 걸쳐 원나라 제과 합격자를 배출한 집안은 순흥안씨가와 한산이씨가뿐이다. 『牧隱集』 권19, 〈雞林府尹諡文敬公安先生墓誌銘〉. "謹齋伯仲皆登中國制科, 受朝命, 光耀一時, 文成子孫所不逮也. 元朝科擧以來, 吾東人父子兄弟相繼而登科者, 順興安氏與吾韓山李氏而已."

62) 주석 58) 참조. 『고려사』 권112, 열전, 〈李仁復〉. "中元朝制科, 授大寧路錦州判官, 東還, 遷起居注. 忠穆卽位, 以仁復中制科有名望, 四轉爲右副代言."

었다. 이들은 외교문서 제작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서적 편찬과 간행 사업을 주도했고 교육과 과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다수 양성하고 선발했으며 외교 부분에서도 사신과 관반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大元至正十五年乙未及第榜〉(1355년). 왼쪽 도판에 '知貢擧 李公遂', '同知貢擧 安輔'가 보인다. 1340년 李公遂가 예부시에서 급제했을 때, 安輔의 형인 安軸이 同知貢擧를 담당했었다.

3) 明나라 제과 응시 및 급제자

명 태조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조서를 내려 향시 합격자를 회시에 응시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응시생의 인원 제한이 없었다. 고려에서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단 한 차례다. 『고려사』「선거지」에 실린 제과 응시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공민왕》 19년(1370) 6월, 명나라가 과거 관련 조서를 반포하여 본국 향시를 치른 뒤 南京 會試에 貢士로서 응시하되 정원에 구애받지 말고 선발하게 했다.[十九年六月, 大明頒科擧詔, 令就本國鄕試, 貢赴京師會試, 不拘額數選取.]

② 《공민왕 19년》 8월, 李仁復과 李穡이 고시관이 되어 三場의 답안지를 두루 평가한 뒤, 李崇仁, 朴實, 權近, 金濤, 柳伯濡를 뽑아 貢士로 충원했다. 이숭인과 권근은 나이가 25세가 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八月, 李仁復·李穡爲考試官, 通考三場文字, 取李崇仁·朴實·權近·金濤·柳伯濡, 以充貢士. 崇仁·近以年未滿二十五, 不遣.]

③ 《공민왕》 20년(1371), 金濤가 제과 제25명으로 합격하여 東昌府丞에 제수되었다.[二十年, 濤中制科第二十五名, 授東昌府丞.]

④ 《공민왕》 22년(1373) 6월, 白文寶와 權仲和가 應擧試에서 金潛, 宋文中, 權近, 曺信, 金震陽을 뽑았다. 권근은 또 나이가 어려서 응시하지 않았다.[二十二年六月, 白文寶·權仲和, 取應擧試金潛・宋文中・權近・曺信・金震陽. 近又以年少, 不赴.]

1370년 6월, 명 태조의 조서가 고려에 도착했다. 당년 8월을 기점으로 본국과 번국을 대상으로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시험 요강을 상술한 科擧程式이 함께 실려 있었다.[63]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會試는 사흘 간격으로 三場을 치르되 五經, 禮樂論, 時務策 등으로 평가하고, 殿試는 시무책을 출제한다. 최종 합격자는 100명이다. 제1갑은 3명으로 제1위는 종6품, 제2위와 제3위는 정7품에 임명하며 進士及第를 부여한다. 제2갑은 17명으로 종7품에 임명하고 進士出身을 부여한다. 제3갑은 80명으로 정8품에 임명하며 同進士出身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년 8월에 李仁復과 李穡이 應擧試 考試官이 되어 이숭

63) 『고려사』 권42, 세가, 공민왕 19년(1370) 6월 24일조.

인, 박실, 권근, 김도, 유백유 5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이숭인과 권근은 25세 미만이라 파견하지 않았다.[64] 한 해 전인 1369년에 이인복과 이색이 지공거와 동지공거로서 33명의 급제자를 뽑았는데 이때도 유백유가 장원을 차지했다.[65] 유백유는 이인복·이색과 두 차례나 좌주와 문생의 인맥으로 연결된 셈이다. 이처럼 원나라 제과 급제자들은 예부시 고시관뿐만 아니라 응거시 고시관까지 담당하며 학맥을 구축했다. 박실은 1362년 예부시에서 장원했으며, 김도와 이숭인도 같은 시험에서 33명 가운데 전체 2위와 5위의 성적으로 합격했다.[66] 피선발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였고 이 중에 3명은 기존 시험에서 同年의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시기	급제자	급제 성적	비고
1371년(공민왕 20)	金濤	制科 第2·5名	東昌府丘縣丞 제수

박실, 김도, 유백유는 1370년 9월 賀正使 權鈞과 함께 명나라에 들어가 이듬해 2월 회시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金濤가 第3甲 第5名으로 최종 합격했다.[67] 東昌府丘縣丞에 제수되었으나 중국어에 서툴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셔야한다는 이유로 귀국을 요청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허락했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나라 과거에 급제한 것도 김도가 유일하다. 더

64) 『墅隱逸稿』 권6, 〈尊慕錄附〉. "李崇仁【字子安, 號陶隱, 星州人. 恭愍壬寅科. 魁征東鄕試, 以年少不赴】"; "權近【字可遠, 號陽村, 安東人. 靖簡公僖之子. 恭愍己酉科. 再中征東鄕試, 皆以年少不赴】"

65) 『고려사』 권73, 志, 「선거, 과목」.

66) 『貞齋逸稿』 권2, 附錄, 〈文科榜目〉【恭愍王十一年壬寅】.

67) 『고려사』 권74, 「選擧, 制科」; 권111, 〈金濤列傳〉. 孫承澤 撰, 『春明夢餘錄』 권41, 「禮部三, 貢院」에도 "洪武辛亥 …… 金濤係高麗人, 在三甲第五名, 後歸國爲相."이 보인다.

욱이 김도는 명나라에서 제과에 합격한 최초의 외국인이다.[68] 이때도 원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국자감에 입학하지 않고 제과에만 응시했다.

원칙상 3년마다 과거를 치르는바 1374년에 제과가 설행될 예정이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제과 응시뿐만 아니라 명나라 국자감에 고려 자제를 입학시키고 싶었다. 중국 국자감 입학의 전통은 예종 연간 이후로 약 250년간 그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1372년 李穡이 〈請子弟入學表〉를 지었고[69] 동년 4월에 洪師範과 鄭夢周 등이 표문을 가지고 명나라로 향했다. 황제는 자제 입학을 수락했으며 中書省에서 해당 咨文을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동년 8월 사행단이 자문을 가지고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 홍사범 등이 익사했으며 자문도 잃어 버렸다. 정몽주는 남경으로 돌아가서 고려 자제 입학에 관한 자문을 재발급 받은 뒤 1373년 7월에 귀국했다.[70] 고려에서는 한 달 전인 동년 6월에 金潛, 宋文中, 權近, 曹信, 金震陽을 명나라 제과 응시자로서 미리 선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즈음에 명나라에서 고려로 파견한 환관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명나라 조정에서

---

68) 王世貞, 『弇山堂別集』 권18, 「奇事述三」, 〈外國人進士〉. "洪武辛亥, 高麗國人入試者三, 金濤登三甲第五, 其國之延安人也. 授山東安丘縣丞, 歸爲其國相."; 『續文獻通考』 권47, 〈學校考〉. "國初高麗遣金濤等入太學. 其後各國及土官亦皆遣子入監." 태학에 입학했다는 『속문헌통고』 기사는 제과 응시의 오류로 여겨진다.

69) 『牧隱文藁』 권11, 事大表牋, 〈請子弟入學表〉.

70)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2년(1373) 7월 13일. 해당 咨文에 "고려 국왕이 자제를 國學에 입학시키고자 하는데 내 일찍이 들으니 당나라 太宗 때도 고려국에서 그 자제를 입학시켰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 만약 부모가 그 자제를 입학시키기를 원하고, 또 그 아들도 부모의 바람을 듣고 공부하러 오는 자는 고려 국왕에게 사람을 시켜 잘 데려오도록 하게 하라. 중서성이 회답으로 보내는 문서에는 반드시 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라."가 보인다.

는 고려의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며 겁박에 가까운 칙유를 보냈는데, 고려의 사행과 교역을 정탐으로 간주했고 머잖아 정벌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전포고에 가까운 내용이었다.[71] 고려에서는 陳情表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1373년 10월에 周英贊, 禹仁烈 등을 서둘러 파견했고, 미리 뽑아 놓은 5명의 제과 응시자 중에서 金潛, 宋文中, 曹信을 동행하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행단이 탄 배가 풍랑으로 전복되어 주영찬 등 38명이 익사하고, 우인열과 송문중 등 극소수의 인원만 살아서 돌아왔다.[72] 이에 송문중을 다시 보내 제과에 응시하게 했으나 시험 일정에 맞춰 도착하지 못한 탓에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73] 더욱이 1374년 9월에 洪倫이 恭愍王을 시해하고, 동년 11월에 護送官 金義가 명나라 사신 蔡斌과 그 아들을 죽인 뒤 사신 林密를 납치하여 甲士 3백여 명과 말 2백 필을 거느리고 北元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74] 이에 명나라에서는 고려를 無道한 국가라고 여기며 국자감 입학과 제과 응시를 불허했다. 1388년(우왕 14) 고려 조정에서는 權近이 찬술한 표문을 통해 국자감 입학을 재차 요청했다.[75] 그러나 그에 대한 명나라 측의 공식적 답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하튼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 연거푸 발생했기 때문에 국자감 입학의 염원은 수포로 돌아갔고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과 응시조차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았다.[76]

---

71)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2년(1373) 7월 13일조.

72)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3년(1374) 2월 28일조.

73) 『고려사』 권44, 세가, 공민왕 23년(1374) 6월 18일조.

74) 『고려사절요』 권29, 恭愍王四, 甲寅二十三年(1374) 11월조.

75) 『고려사』 권137, 열전, 신우 5년(1388) 10월조; 『陽村集』 권24, 事大表箋類, 〈請子弟入學箋〉.

76)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篇, 治道類, 科擧, 〈東人參中國榜眼辨證說〉. "至於皇明, 初次貢士三人, 金濤登殿試, 再次亦貢士三人, 而二人遭風沒于海中, 一人未及會試送還. 其後以洪倫弑恭愍王, 金義殺天使蔡斌, 以爲無道之國,

4. 결론

중국 국자감 입학이나 제과 응시를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表文을 보낸 뒤 그것을 수락하는 詔書를 받아야 했다. 혹은 사행단 편에 유학생을 함께 보내며 국자감 입학이나 제과 응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려 자제가 제과에 급제하여 귀국하면 황제에게 謝表를 통해 사례의 뜻을 전했다. 그 과정에서 고려 국왕과 중국 황제의 어제·어필 표문과 조서가 수수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대중국 유학 및 제과 응시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高麗史』「選擧志」의 내용을 일부 바로잡거나 보충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중국 유학이나 제과 응시를 통해 선진 문물을 흡수하고 견문을 확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송나라 국자감에 입학한 뒤 제과에 합격한 고려 자제를 『고려사』에 기록된 7명에 康戩, 康撫民, 甄惟底를 덧붙여 10명으로 비정했다. 이밖에 유학생과 합격자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자감 입학차 출국한 자가 제과에 급제할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이 소요되었다. 유학생 중에 합격하지 못한 채 귀국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후에도 원나라와 명나라 제과 응시는 이루어졌으나 국자감 입학은 송나라 때가 마지막이다. 976년 송나라로 유학 가서 이듬해 등제한 金行成은 송나라 국자감에 입학한 최초의 외국인이자 고려 자제다. 崔罕과 王琳의 경우는 급제 때까지 6년 동안 국자감에서 수학했는데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오른 점을 감안한다면 귀국했을 무렵 송풍의 유려한 시문을 구사하고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했으며 중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했을 것이다. 고려 과거는 제술을 중시했는데 경술과 책문이 시험 과목에

不許貢士. 安南·琉球, 則登制科爲膴仕者, 代不乏人, 而朝鮮則終明之世, 不得貢士焉." 반면 安南과 琉球 등은 부단히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제과에 등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포함된 것도 송나라 제과 응시와 무관하지 않다.

원나라 때부터는 제과 응시만 이루어졌다. 원나라 조정에서는 송나라 때와는 달리 제과 응시생을 3명 이하로 한정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禮部試 합격자를 대상으로 征東省 鄕試를 치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제과 응시자로 선발했다. 제과 응시자의 절반 정도는 예부시에서 壯元을 차지했던 인물이고 나머지도 최하 丙科 2위 이상의 등차를 받았다. 제과 합격 여부를 막론하고 제과 응시자가 지녔던 학문적 역량을 십분 짐작할 수 있다. 응시자는 제과가 시행되기 한 해 전 9월에서 당년 정월 사이에 길을 나섰다. 원나라 시기에는 제과 합격이 유일한 목적이므로 고려에서 문한직을 충분히 역임한 발군의 능문자 중에서 응시자를 엄선했다. 바꾸어 말하면 예부시에 급제한 지 3년~24년이 지난 완숙한 문신에게 제과 응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제과 합격자 가운데 30대 중후반과 40대 인물이 산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사』 기사에 趙廉을 추가하여 원나라 제과 합격자를 9명으로 비정했다. 원나라 제과의 두 번째 급제자인 崔瀣부터는 제과에 합격한 뒤 원나라 벼슬을 제수 받아 일정 기간 중국에서 근무했다. 대부분 지방관의 일종인 判官 직에 임명되었으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李穀, 李穡 부자는 문한직을 역임하며 중국 최고의 문사와의 교유를 통해 학문과 문학 수준을 심화시켰다. 이채로운 점은 順興安氏와 韓山李氏, 두 가문에서 제과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제과 급제자가 귀국하면 초고속 승진이 보장되었고 주로 문한직을 담당했다. 과거를 설행할 때 으레 고시관을 맡았으므로 座主로서 수많은 門生을 거느리며 정계와 문단에서 커다란 권한을 행사했다. 특히 14세기 중반기는 원나라 제과 출신이 고려 조정에서 왕성하게 활약하며 학술과 문예 수준을 한껏 끌어올린 시기였다. 제과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원나라 수도에서 6년이나 머물며 식견을 넓힌 李齊賢을 위시하여 安震, 安軸, 李穀, 李仁復, 李穡 등의 제

과 급제자가 문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들은 외교문서 제작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서적 편찬과 간행 사업을 주도했고 과거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다수 선발했으며 외교 부분에서도 사신과 관반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명 태조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조서를 내려 향시 합격자를 회시에 응시하도록 했다. 응시생의 인원 제한은 없었다. 고려에서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한 차례다. 1371년 朴實, 金濤, 柳伯濡가 응시하여 이 중에 김도가 第3甲 第5名으로 합격했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명나라 제과에 응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나라 과거에 급제한 자도 김도가 유일하다. 더욱이 김도는 명나라에서 제과에 합격한 최초의 외국인이다. 고려 조정에서는 제과 응시뿐만 아니라, 명나라 국자감에 고려 자제를 입학시키고 싶었다. 중국 국자감 입학의 전통은 예종 연간 이후로 약 250년간 그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1372년 李穡이 찬술한 표문을 가지고 국자감 입학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명나라 황제의 수락을 받았다. 하지만 명나라에서 파견한 환관과 사신이 고려에서 살해되는 사건, 공민왕 시해 사건 등이 연거푸 발생하여 국자감 입학의 염원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로는 제과 응시조차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았다. 유학 및 제과 응시의 단절은 조선시대의 학문적 경직성과 사상적 폐쇄성을 초래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에서는 세종조부터 선조조에 이르기까지 자국 유학생을 명나라에 파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누차에 걸쳐 명나라 조정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조선 조정의 입장과 노력을 위시하여 조선 지식인이 개진했던 對중국 유학에 관한 평가와 견해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四庫全書CD-ROM
中國基本古籍庫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高麗史』
『東史綱目』
『東人之文四六』
『西浦漫筆』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權近, 『陽村集』
朴宜中, 『貞齋逸稿』
申欽, 『象村稿』
李穡, 『牧隱集』
李種徽, 『修山集』
田祿生, 『壎隱逸稿』
趙纘韓, 『玄谷集』
崔瀣, 『拙藁千百』
洪敬謨, 『冠巖全書』
韓致奫, 『海東繹史』

2. 논문 및 단행본

김덕수,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2001, pp. 105-137.
도현철, 「원 제과(1333년)의 고려인 · 중국인 對策文 비교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제89호, 2013, pp. 221-258.

배숙희, 「元代 科擧制와 高麗進士의 應擧 및 授官」, 동양사학회, 『東洋史學研究』 제104집, 2008, pp. 121-154.
고혜령,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2001.
金鍾 지음,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이성무, 『한국 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

(투고일: 2019. 4. 30. 심사완료일: 2019. 6. 20. 게재확정일: 2019. 6. 20.)

김덕수
소 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10호
전자우편: kds2691@aks.ac.kr

[Abstract]

Goryeo Students Studying Abroad in China and Successful Examinees of Imperial State Examination

Kim, Deok-su

Goryeo focused on absorbing advanced culture and fostering international talents by sending people to China to study and also write imperial State examinations. During the Song Dynasty, students studied at Kookjagam and then wrote the irregular examination, but during the Wo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students only wrote the examination. The Won Dynasty carefully selected those who served as civil officials in their countrie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write irregular examination in Won. About half of the examinees were brilliant people who passed the Ministry of Rites Examination by winning the first place in Goryeo and the rest were those who at least passed the examination in the second place. There is one case where Goryeo people wrote Ming's irregular examination. Goryeo made consistent efforts to have its people write the examination in China and also study in Kookjagam of Ming. However, a murder of a eunuch of Ming ignited a diplomatic issue between two countries, which brought the wish to have its people study at Kookjagam to naught and writing the examination was not allowed since then.

Key words: Kookjagam, Imperial State Examination, Ministry of Rites Examination, Passing, Studying Abroad